부귀 없지만 나도 솔로몬

(고전6:1~11)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부귀 없지만 나도 솔로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전대미문의 부귀영화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 받은 솔로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는 내게 없지만, 나도 솔로몬이어야 하고, 솔로몬일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성도라는 말을 정의 하자면, 제2 제3의 솔로몬들이 바로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과 비교해 볼 때 부귀영화는 없어요, 그러나 나도 솔로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대미문의 부귀영화는 없지만 전대미문의 지혜는 나도 역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에요.
솔로몬을 우러러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부귀영화는 아니라도, 지혜는 솔로몬에 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을 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린 시점은 바야흐로, 솔로몬이 20세 약관의 나이에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상태였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뒤에 한 기도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하면, 열왕기상 3장9절에 나와 있는 바대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이 개역한글 성경에는 '지혜를 종에게 주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듣는 마음이 같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할 때 지혜가 뭐냐?
세상적으로 말할 때 지혜는 내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지혜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열왕기상에 보면,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듣는 마음을 구한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의 정답을 알기 위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장수하기라는 것은, 무병장수 아닙니까? 무병해야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부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그 소원을 따라 구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 경쟁에서 일등하기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솔로몬이 성도라면,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돈 문제와 연관된 상황이 벌어지면,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애를 쓰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돈 문제에 얽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부전 다 알잖아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돌보아 줬더니 제비가 박씨를 갖다 주고,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열렸는데 박을 탈 때마다 온갖 금은보화가 다 나왔습니다.
이것을 알고 심술 많은 놀부가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역시 박씨을 갖다 주었는데, 그 박을 탈 때마다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튀어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놀부가 흥부를 흉내 냅니다, 이렇게라도 우리는 솔로몬을 흉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흉내 냅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나라고 하는 개별자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주어지기도 하고 안 주어지기도 할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면 교인이라면, 모두 다 듣는 마음을 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이 듣는 마음을 제1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정답을 들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게 될 때, 나타나는 일 중의 하나를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때에, 뭐 사람이 사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분쟁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 분쟁이 일어날 때에 세상 법정에 가서 그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왕왕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교인들끼리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 세상 앞에 나가서, 성도 앞에서 하지 않고 세상 앞에 나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느냐?
한 마디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처박힌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 갖고 나간 그 사실

을 교회 자존심이 땅에 처박힌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아! 여러분,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세상 변호사가 설교하는 강단에 올라와서, 세상 법정에서 교회분쟁 문제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발표하고, 제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청빙을 받아서 갔다가,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 분이 사비를 털어서 밴쿠버에 일반 재판정에 고소를 해 가지고, 청빙과정에 문제가 있다, 뭐 청빙 받은 사람이 청빙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밴쿠버 사회법에 의거할 때, 교회법에서 차이가 나는 점을 들어서, 청빙과정이 무효라고 하면서, 머리가 샛노란 서양 여자 변호사가 설교단에 올라와 가지고 세상 법정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승과 패를 결정짓는 그런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과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성도의 판단 아래에 있겠거든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천사도 판단할 것이라는 얘기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것인데 세상일이랴'
세상을 판단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세상을 판단한다.
판단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지금은 또 판단을 안 한다고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시시비비를 가려낼 만한 판단력이 없느냐, 왜 판단하지 않느냐? 라고 지금 핀잔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며 지혜를 추구하고 정답을 찾아갑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 지구 위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 겁니까?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맥락에서 판단하라는 얘기는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와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까.

이게 선악과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가.
에덴에서 기쁨의 삶을 살려면 너희 삶의 현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말라,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 사람이 내게 행한 일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판단이 딱 섭니다.
저건 사기입니다.
근데 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저 사람의 행동이 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덴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덴의 삶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판단하라는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재판정으로 삶의 현장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내리신 판단을 받아서 선언하고, 그 판단을 받아서 따라 행동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판단이라는 거예요.
재판장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선언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교회 내 교인간의 분쟁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판단하라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기도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렇게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 재판정으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갖겠다는 그런 결심과 그런 결단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아니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기쁨이라는 게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간 건데,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간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결과를 초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에

서는 기쁨이라는 걸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이 되요.
고린도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로몬에게로 돌아가 생각하면,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천 번제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극~한 정성을 드린 것이다, 굉장히 큰 정성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번제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얘기에요.
많~은 양을, 많~은 크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신이 많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뭘 뜻하느냐?
번제의 의미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제물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은, 소를 일천 마리를 드리는 정말 굉장히 큰 많은 양의 물질을 하나님께 정성으로 바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천 번 죽겠다는 결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상3장에 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자신이 아이라고 그래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아이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큰~ 백성인데, 이 많은 수의 백성들이, 이제 문제를 갖고 올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 많은 백성들의 개별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나가야 될 때와 들어올 때를 구분할 수 없는 아이와 같은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2의 제3의 솔로몬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재판장으로 모시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먼저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아이다, 갓난아이와 같아서 나가야 될 때와 들어올 때를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정답이 없는 아

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건강 문제이건, 그것이 돈 문제이건, 아니면 인간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쟁에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천 번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일천 번 죽어야 마땅하고, 내 의견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내 판단도 죽어야 마땅한 것이고, 오직 '일천 번의 문제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천 번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교회이든, 직장이든, 삶이든, 시장이든 뭐 어디 가정이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다시 말해서 죄로 물들어서 자기 삶의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답을 낼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죄인 됨을 인정하면서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실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시퍼렇게 다 살아 있었던 거예요.
다~ 자기가 나가고 들어옴의 시기적절한 정답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내가 옳은데 왜 당신이 나한테 대드느냐? 당신이 틀렸다.
근데 저쪽은 저쪽대로 시퍼러둥둥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왜 당신은 향해 틀렸다고 하느냐?
아 좋다! 그러면 우리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자.
아! 모두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인 됨, 자기 안에는 정답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주님과 죽는 죽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살아 있으면서 자기가 다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재판장 대 재판장이 붙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가려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판단이 서야 됩니다.
어떤 판단?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A와 B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B, 네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라!' 하시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준비 돼 있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빌었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김 집사님, 전적으로 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무조건 당신에게 잘못을 빕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아래를 보면 불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불의.
불의가 뭐냐?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게 되는 모든 행동이 다 불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고 하지 않는 모든 행동이 다 불의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불의에는 온갖 범죄들이 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음 이런 것들이 다 불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불의를 행하게 될 때, 불의라는 건 하나님의 정답을 듣고 살아 본 적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 본 적이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니까.
우린 자꾸 착각해요, 한 번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맞아요, 한 번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한 번 믿는 그 믿음이 아직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이름만 부른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게 뭐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매일같이 죽어야 되는데 하루 못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또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답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일천 번제를 드려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의 생애를 살아갈 동안에, 몇 번의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 번, 이만 번, 백만 번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걸 일천 번제로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일천 번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계속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게 뜻하는 바가 뭐에요?

하나님의 언제나 모든 케이스 케이스마다 살아계시면서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라는 얘기는, 이렇게 속여 빼앗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호의를 베풀고 배려하고 교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선물할 때도, 이것도 불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내 마음이 목사님이 좋아서 목사님께 선물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고 천국이 좋아서 목사님께 선물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탐욕하고 속여서 빼앗는 것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좋아서 그에게 호의를 베푼 것도 불의라는 얘기에요.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께 선물할 때도 여러분이 선물하면 그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좋아하는 마음도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는데, 그 정답이 뭐냐 하면 목사님께 조그만 선물이라도 해라, 이럴 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에덴의 삶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번제로 죽으라는 얘기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마음을 품을 때도 일천 번제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일천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일만 번 죽어야 되고, 백만 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답이 들리고, 하나님의 정답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 선언하고 행동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간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번제로 자기를 드리지 않으므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듣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을 회복하셔서, 제2 제3의 솔로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악한 일도 그만 둘 뿐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호의를 베푸는 일에서조차도 우리는 내 좋은 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정답을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사는 직장과, 내가 사는 교회가 모두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에덴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